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6월 23일(일) 11:40	강당
사목회의	6월 27일(목) 19:40	강당
성체분배자회	6월 30일(일) 교중미사후	성체조배실
제대헌화회	7월 02일(화) 10:30	2교실
자녀를 위한 기도	7월 05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7월 06일(토) 17:30	강당

● 빈첸시오회 도입 60주년 총회

- 일시 : 6월 30일(일), 오후 2시, 강당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시 : 7월 05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7월 06일(토) / 오전 6:30

● 유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일시 : 7월 20일(토)~21일(일), 1박 2일
- 장소 : 강화도
- 대상 : 6세~12세 어린이
- 문의 : 최웅석 교감(010-5473-9476)

● 본당 교실 냉방기 사용 안내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5℃입니다.
- 회합 종료 10분 전에 에어컨 리모콘으로 운행을 종료합니다.
- 퇴실 시, 5교실 복도 벽면에 부착된 연두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 2-3번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수능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수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을 하고자 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홍선희 베로니카(010-4435-7375)
-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알림

- 오늘은 단식모금 운동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6월 30일(일)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6/3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5지역	청소	1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6월 12일 ~ 18일)

교무금	6,255,000원
주일헌금	5,481,500원
박정순 5만원 이동휘 5만원 오명해 5만원	
감사헌금 정연희10만원 정미옥10만원 박서연10만원	
심상운10만원 권OO 5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6/23	권태희	심재순	도현만
6/30	구민서	조흥환	이응남
		김덕영	김성해

● 성체 분배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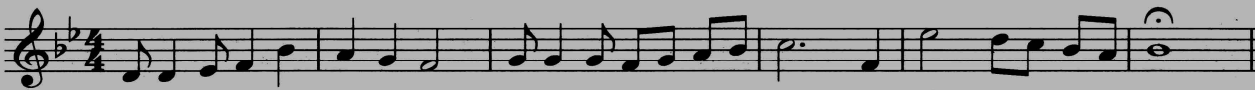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6/23	김영배	김인기	손상민	박용환
6/30	오광운	이운영	이화봉	장인홍
			최석준	옥윤필



6월 생활환경 캠페인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가정생활환경분과 제안)

성가번호 ♪ 입당 : 21 ♪ 예물준비 : 217, 510 ♪ 영성체 : 504, 501 ♪ 파견 : 73

화답송



주님을 찬송 하 여 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 하 시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03. 기술 과학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유용한 가전제품부터 대형 운송 수단, 교량, 건물,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에 매우 소중한 수단을 생산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과학은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어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름다움의 세계로 ‘도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나 마천루의 아름다움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훌륭한 미술 작품과 음악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적 도구들을 사용한 이들이 의도한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에 대한 관상을 통하여, 비약적 도약이 일어나 결국 인간 고유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104. 우리는 핵에너지, 생명 공학, 컴퓨터 공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우리가 이룩한 많은 다른 능력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준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능력들은 온갖 기술 지식, 특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재원을 확보한 이들이 인류 전체와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이 정도의 힘을 지닌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현재 그러한 힘이 쓰이는 용도를 살펴보면 그 무엇도 그러한 힘이 지혜롭게 사용되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투하된 핵폭탄과 더불어 나치즘, 공산주의, 여러 전체주의 정권들이 수백만의 사람을 살상하려고 개발한 엄청난 기술의 동원을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전에 동원되는 더 치명적인 무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힘이 누구의 손에 있고 결국 이 힘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 힘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05. 사람들은 힘이 늘수록 “진보”가 이루어지고, “안전, 유용성, 복지, 활력, 가치 충만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실재와 선과 진리가 이러한 기술과 경제의 힘에서 저절로 생겨난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 발전에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이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가 지닌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자신이 당면한 도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유 의 규범이 아니라 이른바 유용성과 안전만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인간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의식, 즉각적인 욕구, 이기주의, 잔인한 폭력의 맹목적인 힘 앞에 무너질 때 병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아무런 통제 수단도 없이 커져만 가는 자기의 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형식적인 수단들은 마련해 두었으나, 실제로 한계를 정하고 냉철한 자제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